

진코로

‘진코로’는 ‘세키이치(매년 1월에 열리는 시장)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. 동물이나 꽃, 그 외에 길조를 상징하거나 겨울과 연관된 모티프를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쌀가루로 만들어졌으며, 설국에서는 예로부터 새해의 길조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소중히 여겨져 왔습니다.

‘진코로’라는 이름은 대략적으로 번역하면 ‘개’ 또는 ‘강아지’를 의미하며, 일본의 개 품종인 ‘진(Chin)’에서 유래되었다고 여겨집니다. 실제로 개는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.

진코로의 정확한 기원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지만, 적어도 140년 이상 전부터 스와초의 한겨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. 진코로는 지역주민들이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 임시 수입을 얻기 위해 만든 여러 수공예품 중 하나였습니다. 특히 설 명절에는 가정에 장식하는 인기 길조 물품이 되었습니다. 찐 쌀가루로 만든 진코로는 마르면 표면에 금이 가는데, 금이 많이 갈수록 그해 운세가 좋아진다고 여겨집니다.

예전에는 진코로를 솟불에 구워 떡처럼 먹기도 했으나, 이 풍습은 현재 거의 사라졌습니다. 최근에는 액세서리용으로 수지 점토로 된 튼튼한 것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